

# 反抗으로서의 自殺\*

-李淸俊 단편 <벌레 이야기>의 실존주의문학적 성격

張 良 守\*\*

차 례

I. 序論

II. 잘못된 해석 - '거짓 신앙의 과탄'

III. '인간'을 배앗은 神의 항거

IV. 結論

## I. 序 論

李淸俊은 64세란 나이는 전혀 두고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한국의 한, 두드러진 원로작가라 할 수 있다. 1965년 제7회 『思想界』 신인문학상에 단편 <퇴원>이 당선되어 문단에 나온 그는 지금까지 70편이 넘는 장단편 소설을 발표했고 14권의 창작집과 단행본, 장편소설을 간행한 바 있다. 그동안 그는 동인문학상을 비롯한 한국의 우수한 문학상을 휩쓸다시피 했다. 그와 그의 작품은 외국에도 상당히 알려져 있다. 중편 <이어도>와 <예언자>는 1991년 프랑스로, 장편 <자유의 문>은 1992년 일본어로 번역, 출판된 바 있다. 그의 한국에서의 작가적 위상은 그가 받은, 교과서 게재 저작권료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 이 논문은 2002년도 동의대학교 일반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된 것임.

\*\*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중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린 <선학동 나그네> 등의 작품 저작권료 6백 24만 7천원을 받았는데 이는 박경리, 오영진을 누른 최고의 액수다. 그의 소설들은 대체로 난해하다는 평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그가 발표한 소설들은 거의 대부분이 대중, 통속성과는 거리가 먼 순수문학작품으로 그 작품성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한 그의 소설 중에서도 1985년에 발표한 이, <벌레 이야기>는 이전 없이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소설이다. 김현은 이 소설을 가리켜 그의 상상력이 가장 높고 솟아오른 작품, 그가 가진 마적 속성을 유감 없이 보여준 뛰어난 작품이라고 했다.<sup>1)</sup> 그는 여기서 말한 「마적」이란 말을 이성적으로 규제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썼다고 하는데 이는 「신들린」 것 같이 쓰여진 소설이라고 한 것으로 새겨들어도 되지 않을까 한다. 김현 뿐 아니라 다른 비평가들도 이 소설을 문제작, 화제작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 소설에 대한 해석에는 의견들이 구구하게 엇갈리고 있고 어떤 경우는 상당히 큰 견해차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소설은 어린 자식, 알암을 유괴, 살해당한 한 어머니의 죽음의 원인을 추적하고 있는 작품이다. 국민학교 4학년에 다니던 알암은 어느 날 학교길에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 그 어머니는 온갖 노력을 다해도 자식을 찾지 못하자 이웃의 한 교회 집사의 권유로 기독교 신자가 된다. 하느님이 자식을 무사히 되돌려 주기를 기원해서였다. 그러나 아이는 얼마 후 참혹하게 살해된 시체로 발견되고 만다. 슬픔에 잠긴 어머니는 신앙심을 버리고 범인에 대한 원한과 저주로 날을 보내다가 그 집사의, 그래야만 아이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에 다시 하느님을 믿고 범인을 용서한다. 그러나 그녀는 범인이 이미 기독교 신자가 되어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기꺼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절망감에 빠져 자살을 하고 만다는 것이 그 줄거리다.

스토리에서 알 수 있듯, <벌레 이야기>는 기독교신앙을 소재로 한 소설이다. 이 작가는 종교, 신앙을 소재로 한 소설을 비교적 많이 쓴 편인데<sup>2)</sup> <벌레 이야기>도 그 중 한 편이다. 이 작가가 쓴, 기독교신앙을 집중적으로 다룬 소설은

1) 김 현, “떠남과 되돌아옴”, 『이청준論(김치수 외)』 (三人行, 1991), p.130.

2) <비화밀교> <자유의 문> <이어도> <인간인> 같은 작품들이 그에 속한다.

이 작품과 장편 <낮은 데로 임하소서>가 대표적인 것이다. 그 중 <낮은 데로 임하소서>는 1981년 발표된 이래 10년 남짓한 세월 동안에 79쇄를 간행할 만큼 상업적으로 성공한 소설로 독실한 기독교신앙에서 얻는 평안,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의 작품으로는 예외적으로 「선교문학」, 「교회의 선전용 팸플레트」 같은 소설로 보이기까지 한다는 평을 듣고 있는<sup>3)</sup> 이 작품은 李清俊의 것으로는 예외적으로 상당히 대중취향적이어서 문예물로서의 작품성도 비교적 떨어지는 편이다.

그러나 <벌레 이야기>는, 연구자가 보기로는 그의 기독교신앙 소재 소설 중에서도 가장 진지하고 심도 깊은 문학사상이 담겨 있는 작품이다. 여기까지는 다른 비평가나 일반 독자들도 연구자와 의견이 그렇게 틀리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문제는 그 다음에서부터 시작된다. 학계와 평단에는 이 소설이 기독교 신앙을 어떤 시각에서 보고,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해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한 쪽이 이 소설의 주제를 잘못된 신앙을 가진 한 인간의 파멸이라고 본 반면 다른 한 쪽은 기독교신앙에 대한 實存的 인간의 저항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객관적이고 엄밀한 작품 분석에 의해 어느 쪽이 타당한 해석인가를 규명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소설이 그 비극적 결함(tragic flaw)을 주인공에게 歸責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초월적 신의 부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는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 것인가에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이 소설을 후자 곧 무신론의 입장에 선, 한 편의 實存主義小說로 보고 이를 논증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론은 심리주의 비평의 그것에 의지했다.

3) 이동하, “한국 대중 소설의 수준”, 『이청준論(김치수 외)』, (三人行, 1991), pp.251~258.

## Ⅱ. 잘못된 해석 - '거짓 신앙의 파탄'

이 글에서는 편이상 전자의 견해부터 살펴본 다음 후자의 시각 및 연구자가 보는 바를 말하기로 하겠다.

김윤식은 어떤 글에서 이 소설을 두고 「살인자가 오히려 성스러운 너울을 쓰고 피해자를 용서하는 아이러니를 이해할 수 없는 세계」라고 하고 「이것이 신을 가져 본 적이 없는 국문학의 한계」라고 했었는데<sup>4)</sup> 이것은 이 작품이 작가가 참된 기독교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쓴 소설이라는 말임과 동시에 주인공의 비극이 자신의 잘못된 신앙이 자초한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더욱 직접적, 집중적으로 이 소설을 주인공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라 하고 있는 것은, 이 작가와 작품에 대한 비교적 정평을 얻고 있는 평론집에 실려 있는 현길언의 평론이다. 이 글의, 그와 같은 주장의 바탕이 되는 논리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다. 곧 주인공은 처음부터 잘못된 동기에서 기독교신앙을 가지려 했으며 따라서 그리하여 가진 신앙이란 것 또한 거짓된 것이었다는 것이다.<sup>5)</sup> 확실히 이는 틀린 말이 아니다.

그녀가 자식을 잃고 종교에 접근한 것은 세속적인 祈禱信仰的인 동기에서였다. 주인공은 실종된 아이를 찾지 못하자 절을 찾아가 촛불을 켜고 공양을 바치고 오는데 이것은 참된 불교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佛子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려는 곳은 見性이요 모든 輪廻와 얽매임으로부터 해방되는 解脫의 경지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것은 진정한 자아 곧 眞我를 발견하려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 眞我라는 것은 키엘케골에 있어서의 超越者와 같은 성질의 것이며 니체에 있어서의 無神의 세계에 장차 올 디오게네스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주인공이 절을 찾아가서 한 것은 아이를 찾게 해 달라는 오직 그 하나의 목적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주변의 여인들이 아들을 낳게 해 달라고, 자식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 달라고 부처 앞에 가서 엎드려 비는 것과 다를 바 없는,

4) 송상일, “소설가 아담의 고뇌”, 『작가세계』(세계사, 1992년 가을호), p.128에서 재인용.

5) 현길언, “구원의 실현을 위한 용서”, 『이청준論(김치수 외)』(세계사, 1991), pp.300~310.

진정한 불교신앙과는 다른 것이다.

주인공의 기독교신앙도 그와 같은 것이었다. 그녀가 처음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한 것은 자식을 무사히 찾게 해 달라는 일념에서였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의식에서 출발한, 논리를 초월한 사랑의 세계인 진정한 기독교신앙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아이가 참혹한 피살체로 발견되자 그녀는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은 하느님을 원망하고 교회에 등을 돌려버린다. 그 후 그녀는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신앙이 불쌍하게 희생된 자식, 알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한다는 말을 믿어서였다. 그러니까 이 또한 기독교에서 볼 때 참 신앙이 아니었다. 현결언은 자식을 찾으려는 소망, 자신과 자식의 영혼의 구원을 바라고 가진 그녀의 신앙심은 거기에 자기 소멸 의지가 없고 자기 구원의 의지만 있는 이기적인 거짓신앙이었다고 하고 있다. 이어 그는 그러한 기원은 받아들여질 리가 없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그녀가 어떤 구원도 받을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었고, 그러므로 그녀는 처음부터 파멸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다고 하고 그것이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말에 따르면 요컨대, 이 소설의 주제는 「잘못된 신앙과 거기서 온 파멸」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독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의 생각에는, 그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작품 해석으로, 그렇게 보면 이 소설은 세속적인 한 인간의 절망과 거기서 온 자기파탄이란 지극히 평범한 한 토막의 측은한 인간 이야기에 머물고 말게 된다. 그와 같은 해석은 이 소설로 하여금 어떤 심각한, 깊은 의미를 가진 인간 탐구 아닌 평범한 스토리 수준을 넘지 못하게 한다.

연구자는 이 소설이 그러한 「이야기 수준」의 단순한 서사물이 아닌, 상당히 깊은 함의를 가진 것으로 보았다. 이 소설에 대해서는 위와는 상당히 다른 또 하나의 해석이 있다. 그것은 이 소설이 무신론적 實存主義思想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연구자는 그에 동의하면서 왜 그렇게 읽는 것이 타당한가를 구체적으로 논증해 보려 한다.

### Ⅲ. ‘인간’을 빼앗은 神에의 항거

<벌레 이야기>는 의문의 여지없이 무신론에 바탕을 둔 소설이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에 있어서의 신을 부정하는 사상의 소설이다. 무신론은 형이상학적 절대가 인정되지 않는 세계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무신론을 가장 솔직, 대담하게 공표한 극단적인 사상가는 니체다. 그에 있어서 복종·관용·동정·자비·인내 등 기독교에서 미덕이라고 부르는 것은 악자, 가축 등과 같은 부류에게나 걸맞는 도덕이요 위선이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대지에 뿌리를 내릴 힘이 없는 어떠한 가공의 상상물도 존재할 가치나 이유를 갖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에 있어서 기독교는 눈앞에 보이는 세계를 버리고 보이지도 않는 신을 찾고 그에 의지하려는 逆理의 세계다.<sup>6)</sup> 이 소설에서 우리는 니체의 그와 같은 주장을 읽을 수 있다. 그와 같은 무신론사상은 이 소설의 나레이터, 주인공의 남편의 어조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주인공이 아이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광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져 ‘- 주님, 감사합니다. . . .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있을 때 그가,

등골이 빠지게 일을 해서 끼니상을 차려 놓으니 그 자식들로부터, 아버지 하느님, 오늘도 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하는 식의 기도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아버지의 심사가 아마 그와 같았을까. 아내의 그런 잦은 감사의 기도는 그동안 아이와 아내 때문에 모든 것을 깡그리 바쳐오다시피 한 나에게는 어떤 가벼운 배신감마저 느껴져 왔을 정도였다.

하고 있는 구절 같은 데서 그것을 엿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인공의 남편이 신만이 있고 인간이 거세된 그 아내의 신앙에 본능적인 저항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소설은 먼저 인간을 죄인으로 보는 기독교사상을 비판, 부정하고 있다. 기독교적인 신은 이 세상에 최대의 죄의식을 심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뇌, 불행의 원인은 인간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으로 되어 있다. 그와 같은 논리에 따르면 아이가 그런 참혹한 번을 당하게 된 것도 인간의 원죄 때문이

6) 曹街京, 『實在哲學』(博英社, 1991), p.43.

된다. 주의해서 읽으면 이 소설은 그 서두에서부터 인간에게 그런, 원죄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소설이 그 도 입부에서 알았이 「유순」했으며 「조용」했고 「조심스럽기만」했으며 「제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하얗게」 자라가고 있는 아이였다고 하고 있는 데에 그것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아이가 시체로 발견 된 후 이웃이 하느님을 믿으라고 권유했을 때 주인공이,

— 모두가 다 부질없는 노릇이에요. 하느님의 사랑도 거짓말이구요. 하느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시다면 우리 알았을 왜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그 어린 것에게 무슨 죄가 있단구. . . . . 하느님의 사랑이 정말 크시다면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게 했어야지요. (방점은 필자가 친 것임)

라고 한 말에서 그 원죄 부정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여기서도 우리는 이 소설의 實存主義思想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實存主義思想은 신을 부정할 뿐 아니라 원죄 또한 있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주인공의 위와 같은 항변은 대표적인 實存主義 철학자이자 소설가의 한 사람인 카뮈의 주장과 조금도 틀리지 않은 사상을 보여 준다. 여기서 우리는, 카뮈의 대표작 <페스트>에서 친진하고 아름다운 한 소녀가 흑사병에 걸려 끔찍스런 고통 속에 죽어 가는 것을 본 주인공, 의사 류가 모든 것을 죄 많은 인간에의 징벌이라고 하는 파르누 신부를 향해 그 애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런 벌을 내린단 말이냐고 노성을 지르는 장면을 연상하게 된다.

<벌레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주인공이 자살을 하게 된 동기에 담겨 있다. 주인공은 자식을 그렇게 잃은 데서 온 충격과 슬픔 위에 또 한 차례 견디기 힘든 좌절감에 직면한다. 범인이 잡혔을 때 그녀는 자신이 직접 그의 「눈깔을 후벼파고 그의 생각을 내어 썰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허용되지 않은 것이다. 범이 그를 보호하고 직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저들끼리 범행의 목적과 과정을 추궁하고, 재판을 해 그의 죽음을 결정지어 그녀의 손이 닿을 수 없는 「튼튼한 돌집」 속으로 들여보내 버린 것이다. 곧 법, 제도가 그녀의 복수, 저주를 저지한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래도 그 좌절감은 그런 대로 극복한다. 그녀는 비록 자신의 손으로는 할 수 없을지라도 범이 자신을 대신해 그

에게 복수를 해 주는 것이라도 보려 한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범인이 최대한 큰 고통을 받고 죽어가기를 바라, 「작자의 목매달이」가 될수록 천천히 치러지기를 기원한다. 그것은 실로 지독한 저주요 복수심이라 할 만한 것이다. 나레이터의 다음과 같은 말과 같이 그와 같은 강한 복수심은 그녀로 하여금 슬픔과 고통과 좌절을 견디어 나갈 수 있게 해 준 힘이였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 아내에겐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던지 모른다. 왜냐하면 아내는 그 가슴속에 뜨거운 복수의 불길이 남아 있는 한 자신을 용케 잘 지탱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의 진짜 마지막 불행은 그 처절스런 가슴속의 복수심이 사라져간 데서부터 짝이 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르트르는 인간과 세계가 「참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사랑·증오·분노·공포·환희·분개·찬양과 희망·절망에서라고 한 바 있다.<sup>7)</sup> 위에서 그녀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사르트르가 말한 그, 「분노」 「증오」가 주는 에너지 때문이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분노와 저주와 복수심이야말로 그녀가 견디는 데 무엇보다 소중한, 「힘차고 고마운 본능」이요 생존력의 원천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녀는 하느님, 신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인간이려 했고 또 그렇게 산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해야만, 자식의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는 한 교인의 말에 다시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하여 그, 분노·저주·복수심을 버리고 범인을 용서한다. 그러나 그녀는 이번에는 그, 범인을 용서할 권리마저 빼앗기고 만다. 범인이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어 이미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마지막 날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뿐 아니라 오히려 그가 자신을 증오하고 저주하는 그녀를 용서한다고 하고 있는 데서 그녀는 더할 수 없는 절망을 느낀다. 여기서 그녀는, 자신에게 하느님 믿기를 권유한 집사를 향해,

—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싫어서라기보다는 이미 내가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게 된 때문이었어요. 집사님 말씀대로 그 사람은 이미 용서를 받고 있었어요. 나는 새삼스레 그를 용서할

7) J.P.Satre, Situation, Vol. 3, Gallimard, 1949, p.273.



수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지요. 하지만 나보다 누가 먼저 용서합니까. 내가 그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나 먼저 용서하느냐 말이에요. 그의 죄가 나밖에 누구에게서 먼저 용서될 수 있어요? 그럴 권리는 주님께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선 내게서 그걸 빼앗아가버리신 거예요. 나는 주님에게 그를 용서할 기회마저 빼앗기고 만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다시 그를 용서합니까.

라고 소리친다. 이것은 하느님이 사랑도 용서도 다 해 버린다면, 나는 원수를 저주할 수도, 그에게 복수를 할 수도 없고 더욱 용서할 권리마저 빼앗겨버린다면 그럼 나는 무엇이란 말이나 하는 항변의 목소리라 할 수 있다. <벌레 이야기>란 이 소설 제목에서의 「벌레」란 말도 그래서 쓰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그녀는,

하지만 그것이 과연 주님의 뜻일까요? 당신이 내게서 그를 용서할 기회를 빼앗고, 그를 먼저 용서하며 그로 하여금 나를 용서케 하시고 . . . . . 그것이 과연 주님의 공평한 사랑일까요. 나는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정녕 믿어야 한다면 차라리 주님의 저주를 택하겠어요. 내게 어떤 저주가 내리더라도 미워하고 저주하고 복수하는 인간으로 살아가겠다는 말이에요 . . . . .

라고 하고 그를 용서하기 전의 자신으로 되돌아가려 한다. 그러나 그녀는 거기서 또 하나의 절망에 부딪혀야 했으니 그것은 이제, 그녀는 그를 용서하기 전에 자신을 버릴 수 있게 해 주었던 그, 저주와 원한, 복수심마저 되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어설픈 신앙심을 가지게 되는 동안, 범인을 용서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 범인 또한 가련한 한 인간이라는 것을, 그러한 인간을 상대로 한 복수도 저주도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이제 그녀는 하느님의 섭리와 자기, '인간' 사이에서 두 갈래로 찢겨지게 되었다. 결국 주인공은 여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만다. 작가는 어느 자리에서 이 소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인간의 구원이란 인간끼리의 책임과 관계 속에서 용서받은 다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간의 한계를 벗어났을 때 마지막으로 신 앞에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윤리나 용서를 비껴가 막 바로 신하고 직교하면 비인간화하게 된다고 하고 그것이 이 소설의 주인공을 죽음

으로 몰고 간 원인이라고 하고 있다.<sup>8)</sup> 작가의 위와 같은 말, 소설의 그와 같은 결말 역시 實存主義思想에 맥이 닿는 것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주인공의 怒聲에서 카뮈의 <異邦人>에서의 주인공 피르소의 목소리와 같은 것을 듣게 된다. 피르소는 사형을 앞두고 있는 그에게 목사가 신의 구원을 받으라고 권하자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이 실존뿐이다. 비록 不條理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유일하며 또 전부이고 각자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무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성을 내어 말한다. 신을 부정하고 인간의 實存을 至上의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소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주인공의 죽음의 의미이다. 앞에서 언급한 평론이, 이 작품이 거짓된 신앙 이야기란, 동의하기 어려운 해석을 한 것도 이, 죽음의 의미를 잘못 본 데서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오랫동안 우리들의 정신세계는 소극적 죽음관이 지배해 왔다. 내세의 축복을 약속하는 기독교나 그 밖의 종교사상들, 염세주의적인 철학자 등은 죽음을 생에 대립되는, 生의 他者로 보아왔다.<sup>9)</sup> 이 소극적인 死觀에서의 죽음은 生의 끝남이다. 그러한 신앙, 철학을 가진 사람은 현세는 내세로 가는 일시적, 과도기적 단계요 진정한, 生은 내세에 기약되어 있고 다음 세계가 있음으로 위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현세의 생과 적극적으로 만나려는 의지는 미약하다. 한편 더욱 소극적인 死觀은 그러한 신앙도 철학도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으로, 그것은 모든 것의 허무한 끝남이다. 앞서 언급한 현길언의 평론이 본, 주인공의 죽음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것은 패배와 절망 끝에 이른 자기파멸이다.

한편 實存主義의 시각에서 보면 죽음은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死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단순한 生의 종말이 아니다. 그것은 生의 본질적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죽음이란 현상은 한, 「인생의 사실」이다. <벌레 이야기>에서의 주인공의 죽음도 통속적인, 소극적인 죽음이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패배도 자기파멸도

8) 이청준, 『서울신문』 1985년 8월 31일자.

9) 曹街京, op.cit., p.140.

아니다. 김현은 그녀의 죽음에 정곡을 찌르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데<sup>10)</sup> 연구자는 그의 견해에 동의한다. 그는 주인공이 비록 하느님이 용서했다 하더라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용서받은 것이 아니다」 「나는 의미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겠다, 나는 내가 나 자신의 주체가 되겠다, 그것만이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하는 주장을 자살로 보여 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므로 그녀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부정적 세계를 부수는 것이라고 했다. 그에 의하면 그녀는 세계의 무의미에 항거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세계가 의미 없다 하더라도, 자살하는 행위까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자살은 세계의 의미 없음을 부정하는 부정적 세계의 행위라고 했다. 그는, 그러니까 그녀의 자살은 세계의 무의미를 부수는 행위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그녀의 자살은 신의 섭리뿐 아니라 세계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에서의 주인공의 자살은 實存的으로 이해되는 죽음이다. 그것은 生 전체의 의미를 규정하는 권위를 가진 행위이다. 그것이야말로 하이데거가 말한 「죽음에의 先驅」라 할 것이다. 이 때의 죽음은 生의 연속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生의 의미가 집중되는 초점이다. 生은 그곳으로 향하여 집중되고 또 다시 거기서 반사하여 生의 전면적인 구조가 조명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주인공의 죽음은 카뮈가 말한 「不條理에의 항의」라 할 수 있다. 實存主義哲學에서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단절감을 느꼈을 때, 인생의 존재 이유의 부재를 느꼈을 때, 인생살이의 고통스러움의 무의미함을 느꼈을 때 不條理를 느끼게 되는데 카뮈는 이 때 인간은 자살과 반항, 두 가지 태도를 취한다고 했다. <벌레 이야기> 주인공의 자살도 그런 의미에서 不條理에의 반항으로서의 죽음의 의미를 가진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각자 자체 자신으로 되돌아오게 호출하는 최후의 권위이며 그녀로 하여금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게 한 최고의 가능성이기도 하다.<sup>11)</sup> 그녀의 죽음은 본래적인 현재를 확립하는 과정이요 과거·현재·미래를 각각 결별시키면서 인간이 자기 자신의 고유한 존재 가능성을 창조하는 행위요, 「자유」로, 셸링이 말한

10) 김 현, 「떠남과 되돌아옴」, 『이청준論(김치수 외)』(三人行, 1991), pp.130~131.

11) 曹街京, op. cit., p.142.

脫存在(Ekstasis)와 같은 것이다.<sup>12)</sup>

무의미한 고통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녀는 또 야스퍼스가 말한 實存, 무계약적 존재다. 야스퍼스는 무계약적 존재는 자기 이외의 어떤 다른 원인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치될 수 없는 절대적 성격을 가진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한 존재의 자살은 범상한 인간의, 현존재를 객체화해버렸을 때의 죽음 곧 「최후(Ende)」, 종말과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그것은 實存이 자각된 깊은 곳에서 내가 나 자신의 죽음을 형성하는 것으로 「완성」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이상을 종합하면 <벌레 이야기>는 「은총이 더 이상 일용할 양식이 아닌」, 신의 가호가 부정된 세계란 말이<sup>13)</sup> 바로 적용되는 소설, 신의 권위를 부인하고 거기에 도전하는 소설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한국 현대소설 중 實存主義思想이 짙게 깔려 있는 소설로 보아야 할 것이다.

#### IV. 結 論

李清俊의 문제작이자 화제작 단편 <벌레 이야기>에 대해서는 주인공의 잘못된 신앙에서 온 자기 파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견해와 무신론적인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두 가지 크게 상이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연구자는 이에 대한 판가름이 내려져야 할 필요를 느끼고 텍스트를 분석한 바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곧 연구자는 이 소설이 무신론, 그 중에서도 實存主義思想이 짙은 소설로 보았다. 그 논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 소설은 인간을 죄인으로 보는 기독교적 원죄의식을 부정하고 있다. 작가는 주인공의 입을 빌려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당한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이는 신의 존재는 물론 기독교적 원죄를 부정하고 있는 實存主義 사상에 바로 맥을 달고 있는 것이다.

12) *ibid.*, p.144에서 재인용.

13) 송상일, “소설가 아담의 고뇌”, 『작가세계』(세계사, 1992년 가을호), p.142.

둘째, 이 소설은 주인공이 신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는 인간으로 살려 하고 있는 데서도 實存主義思想을 엿볼 수 있다. 實存主義에서는 사랑·분노·증오와 같은 것이 인간과 세계의 참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 소설은 신의 권능을 부정하고 신에 항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實存主義思想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곧 주인공이, 자신이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그 범인을 용서한다 말이나, 아무리 하느님이라도 그럴 권리는 없다고 분개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대목이다.

넷째, 주인공의 자살에서도 우리는 뚜렷한 實存主義思想을 발견할 수 있다. 實存主義哲學에서는 인간은 무의미한 고통을 겪을 때 不條理를 느끼고 그럴 때 자살과 반항을 한다고 하고 있다. 주인공의 죽음은 그러한 반항의 의미를 가진 것이며 그것은 곧 그녀의 實存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점에서 <벌레 이야기>는 지금까지 발표된 한국 소설 중 實存主義思想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작품이라 할 것이다.

주제어: 죽음·반항·무신(無神)·실존

## 참고문헌

- 김치수 외, 「이청준論」(三人行, 1991)  
 김현, “虛無主義와 그 克服”, 『文學思想』 1968년 2월 호.  
 니체, 『니체全集』 제4권(東星出版社, 1974)  
 듀란트, 「虛無主義」(學生文化社, 1962)  
 朴異汶, “自殺과 反抗”, 『文學思想』 1973년 7월 호.  
 사르트르, 「實存主義는 휴머니즘이다(方坤 譯)」(文藝出版社, 1981)  
 세계사, 『작가세계』 1992년 가을 호.  
 鄭明煥 外, 「20世紀 이데올로기와 文學思想」(서울大學校 出版部, 1982)  
 曹街京, 「實存哲學」(博英社, 1991)

14 한국문학논총 제 34 집

프리즈 하이네만, 「實存哲學(黃文秀 譯)」(文藝出版社, 1990)

韓釜淑·車仁錫, 「現代의 哲學」(서울大學校 出版部, 1982)

J.P.Sartre, Situation, Vol.3, Gallimard, 1949.

<Abstract>

Death as a Resistance :  
The Meaning of  
Lee, Chung-Joon's Short Story, "An Insect Story"

Chang, Yang-Soo

Lee, Chung-Joon's short story, "An Insect Story" has such literary features as following.

First, the story negates christian original sin like philosophy in existentialism.

Second, the protagonist in the short story does not depend on God, but she strives to live her life as a human being in existential situation, showing her own love, fury, and hate.

Third, the protagonist does not admit God's almighty power, protest against God's authority in existential condition.

Fourth, the idea of existentialism can be extracted out of the protagonist's suicide. she committed a suicide as a sign protagonist's suicide does mean the perfect completion of an existentialist life.

The story has the most vivid characteristics of the existentialist idea that have ever published in the history of Korean contemporary novels.

Key word: death, resistance, unfaithfulness, existence